



# 제니퍼 보이스코

## 86지구 주의원 후보 (민주당)

**버지니아는 메디케이드 확대적용을 위해 연방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까?**

예. 우리 주가 이에 불참해서, 하루에 (1인당) 5불씩 연방 기금을 못 받고 있으며, 4십만이 넘는 버지니아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
**버지니아는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에게, 이민신분에 관계없이,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까?**

예. 비영리 단체들은 현재 버지니아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. 청소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.

**주/지역 경찰이 287g조약에 사인함으로써 이민국단속반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?**

아니오. (상세의견 없음)

**운전시험을 통과한 적절한 나이의 모든 개인에게, 이민신분에 관계없이, 운전면허증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?**

예. (상세의견 없음)

**협조적인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을 경찰의 상시적인 이민신분 확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?**

예. (상세의견 없음)

**버지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불로 인상해야 할까요?**

예. 저는 이런 내용의 법안에 이미 찬성한 바 있습니다.

**버지니아는 “노조결성 제한및 금지” 법을 폐지해야 할까요?**

이 법을 폐지하기에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합니다. 저는 주 헌법을 수정해서 이 법을 영구적으로 추가하려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며, 그 시도가 실패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.

**버지니아는 소득세 과세 적용대상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?**

예. (상세의견 없음)





# 제니퍼 보이스코

## 86지구 주의원 후보 (민주당)

**버지니아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 
합니까?**

예. 86지구의 최소 30퍼센트의 주민들이 미국외 국가 출신입니다. 이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은 우선과제입니다.

**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모두에게, 이민신분에 관계없이, 대학  
진학시 주내 학비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?**

아니오.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지원해야 합니다.

**학생들이 경제부담 없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 
계십니까?**

학비 용자를 제조정하고, 주 재정을 더 늘리는 것. 마르커스 사이몬 주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. 저는 그의 법안을 지지합니다.

**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주민들이 주 정부문서를 좀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 
단계적 해결안을 가지고 계십니까?**

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 언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당사자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.

**유권자가 아무 이유없이도 부재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찬성하십니까?**

예. 저는 의회산하 권리및 선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, 이유불문 부재자 선거제도는 물론 유권자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찬성해 왔습니다.

\*사진은 후보 웹사이트에서 전제

